

# “박물관서 ‘문화의 힘’ 나오죠”

## 산문박의 11월

### 삼성출판박물관 김종규 관장

삼성출판사 회장, 한국차문화협회 부회장, 문화재 전문위원, 기업메세나협의회 발기회원, 민학회 회장... 삼성출판박물관 김종규관장의 여러 모습이 다. 그러나 이런 여러 이름들은 우리시대의 “전천후 문화인” 김종규로 모아진다.

그는 매일 두 곳으로 출근한다. 서울 서초동 삼성출판사 신 사옥과 당산동 출판박물관. 94년 출판사 사장직을 쓴 조카에게 물려준 후 좀 더 많은 시간을 박물관에 쏟게 되었다.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높은 자리는 올라감과 동시에 내려와야 합니다. 출판도 정보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감각을 갖춘 젊은 사람들이 맡아야죠. 김진용사장이 잘하고 있어 출판일은 걱정 않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그의 첫째 일은 50만여 점에 이르는 소장품 정리이다. 개관 이후 개관기념전을 비롯 ‘교과서 특별기획전’ ‘한국신문화(新文化) 특별기획전’ ‘백두산자료 특별전’ ‘여성자료전’ 등 매년 1회꼴로 특별전시회를 열어 왔다. 올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특히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인 점을 감안 문화유산의 가치를 관람객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묘안을 짜고 있다.

문화의 힘을 믿는 그이가 어떤 작품(?)을 내놓을까, 자못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 빼있는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90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50만명이 다녀갔는데, 정치인이나 기업가 등이 틈바 실력자들의 발걸음 뜰했습니다. 박물관은 한 나라의 문명의 척도입니다. 역사와 전통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박물관입니다.”

문화의 힘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문화론이 전천후 문화인으로 불리우는 원천이다.

“다선회(茶禪會) 종장으로 모시고 있던 호당 최병술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국악인 박귀희씨 제자인 정한희씨가 호당선생 생일잔치에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선생께서 눈물을 쏟으며 우시더군요. 평생에 근엄하기만 하던 호당선생이 우시다니, 놀랍기도 하고 절로 숙연해지더군요. 우리의 문화

“**근엄하시던 호당선생이 가야금병창을 들으시며 눈물을 쏟고 우시더군요. 우리문화의 위력을 새삼 가슴깊이 느꼈어요**”

에 깃든 위력을 새삼 가슴깊이 느꼈습니다. 문화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닐까요?”

독서도 그의 중요한 일과이다. 박물관 2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책으로 빽빽하다. 모두 지인들이 친필사인을 해서 보내준 것들이다. 고은 김용운 천해봉 김홍렬 강우방 김문환 공성진 정양모 구상 이시형 남재희 이동원 이호

### “조상들 지혜 전수받을 공간 마련하자” 90년 출판박물관 설립... 책만들기 30년 정치·기업인 문화사랑 관심 부족 독서는 남의 경험 내것 만드는 최선법

철... 보내준 책들을 읽고 간단한 평도 붙이고, 출판인인지라 책의 장점, 오자, 잘못된 문장을 꼬집는다.

“보내준 봉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책 한권 내기 위해 쌓은 인고의 세월에 대한 경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귀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출판 일에 뛰어든 것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형(김봉규·현 삼성출판사 고문)의 요청으로 부산지사장을 맡은 64년부터였다. 그리고 30대 이상인 삼성출판사에서 펴낸 한국단편소설선집 세계문학전집 세계사상선집 한 두권은 보았을 정도의 출판사로 일구었다. 이때 발원한 것이 하나 있다. 출판박물관을 세우는 일. 그는 어수선한 부산 북수동거리에서 미래를 발견했다. 고서와 선조들의 손때가 묻은 생활용품들이 여기저기 나돌았다. 그것



삼성출판박물관 김종규 관장

는 말로 박물관의 역할을 평가한다. 출판도 마찬가지로 했다. 이 대목에서 그의 얘기가 길어진다. 책을 읽지 않는 요즘의 세태에 대한 아쉬움이 애기 곳곳에 배어 있다.

“한평생 살아가며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뭔가를 알만 하면 세상을 뜨고 말지요. 공자 같은 성인도 50세에 지천명(知天命)했다고 하는데, 남의 경험을 내 것으로 삼는 최고의 방법은 독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책 만드는 일 이상의 좋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나한테는 그렇습니다. 지난 94년 장경각에서 펴낸 백암록의 텍스트가 삼성출판박물관 소장품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보람으로 여깁니다.”

“앞으로 그럴 그림이요?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유지와 보존이요.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것이 남은 일입니다. 지난 달에 민학회 회장으로 뽑혔는데, 연구자간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 것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책으로 엮어 대중화하는 일도 곧 시작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못하면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도록 후대를 마련해야지요. 당대에 마쳐겠다는 마음도 욕심입니다.”

박물관 건립까지의 회고는 예상밖으로 답답하다. 그리고 “몇백년 전 조상들의 지혜를 전수받는 문화공간”이라

정성운 기사

### 근·十자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문** 기독교의 십자 표지와 불교의 근자 표지는 그 의미가 각각 무엇인지요?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지요?  
(황인섭·경남 통영시 신앙음)

**답** 불교의 만(卍)자는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은 오직 나뭇잎만 끝간데 없이, 앞 뒤도 없고 시발점도 종점도 없이 영원히 돌아간다는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끄트머리를 구부러 놓은 게 불교 돈다. 생명의 불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바퀴라고 해도 됩니다. 법륜 마르도 불바퀴요 근자도 불바퀴요.

십자기는 아래로 길게 그어 놓았는데 그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적십자는 가로 세로가 같은데 그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평등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다 기독교다 하는 구분은 상상에 붙은 간판이나 상표와 같습니다. 이름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 바로 진리입니다. 불교는 특정종교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대로 진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지 상 상 담**  
길 잃은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빙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교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불자들까지도 불교를 가톨릭이나 기독교 또는 알라신교 등과 구별해서 특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겉으로 드러난 불교적인 모습에서 불교를 만나려고 합니다. 가령 승복을 걸치고 불상을 모시고 목탁을 치면 불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생명이요 말하면 생명의 실상 그것이고 만물로 말하면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가 그대로 불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믿을 것은 진리이지 그 무엇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천대천세계 우주의 근본은 인간 마음의 근본에 있고 천지의 근본도 마음에 있고 태양의 근본도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 종말론 등 세기말 예언 많은데

**문** 세기 말을 맞아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지요. 인류의 장래가 어떨지는 내용의 얘기들이 심심치 않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엔 말하면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업이 작용하는 것을 예견해서 말해 놓은 게 아닐까 여겨집니다. 스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인범·전남 여천군 삼신면)

**답** 내 생각이 어떠냐구요? 난 못박귀도 귀고싶지 않습니다. 무슨 불로 심

관한다는 얘기를 20대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 불이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라 이게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 그러니 불로 심관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이 심관을 한다 이 뜻이지 이 세상을 불로 망가뜨려 심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부터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무슨 세기 말이 어떻다해서 예언을 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다 소인입니다, 소인배.

노스트라다무스가 무슨 말을 했고 장강록인가 격암록인가에 뭐라고 써놓았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분들이 이 세상의 정기를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잘 알 것 같으면 왜 뒤바뀌 놓지는 못했습니까?

예언대로 당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자기 자신들이 아닙니까? 그래 자기 자신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당할거라든 쪽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해 놓을게 아니라 한번 출렁 뒤집어서 좀 이익되게, 좀 평화스럽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모든 중생이 다 자기와 틀이 아닌데다 세상 돌아

가는 근본이 다 인간 마음의 근본과 다르지 않으니 구태여 고정되게 생각할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하면 죽는다고 말하기 보다 차라리 죄다 실리는 걸로 해놓겠습니다. 앞 뒤 없는 피리인데 말입니다. 이런 나쁜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틀이 아닌 도리를 믿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란게 그냥 말하기 쉬워서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산에서 살 때에 먹먹을 없어서 소나무 속 껍질을 먹을 양으로 껍질을 벗겨내는데 고만 진이 흐르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벗겨질 못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살려도 자비고 죽어도 자비라고 했습니다만 나무 껍질을 벗기더라도 그 나무와 내가 틀이 아니게 하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살생을 먼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풀 한포기 밟아 한 마리라도 함부로 하겠습니까? 작은 벌레라도 죽게 될 순간이면 불부림을 치고 막 됩니다. 그걸 제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죽어도 자비라고 한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리코 얘기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저만 살겠다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면서 제 욕심대로 하겠다고 기를 막 솟아부어서 바다를 더럽히고 물고기와 새들을 다 기를 범벅으로 죽이더라 말입니다. 그걸 보았을 때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싶어서 참 속으로 ‘폐만’ 사태가 아니라 너희들 매망사태로구나 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내 생명 같이 여기는 마음이라면 불바퀴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관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가동)
	4년	•통신 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0명 •통신 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0명		
신원방송과(불교포도과)	2년	•주간 0명 •통신 0명		

2. 학 교 연 혁

196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방송통신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방송통신대학 불교재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불교학생30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진 형 방 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5. 원 서 교 부 접 수 및 문 의 처

본교: 511-2026-8  
조계사찰 삼보원: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 삼 화 불 교 대 학

##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하세요!

태아가 엄마의 태혈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유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굼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도와 혈당상선으로 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